

순간 순간 후회없이 살아야

묘허 스님의 가르침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막상 연말이 되면 각자가 과연 올해 의미있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과 사물, 현상만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오고 갈 뿐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세월에 집착해 시시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본업(本業)입니다. 참이 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업은 생사의 근본이요, 윤회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마음이 산란해 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업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세해에는 선업을 짓고자 노력한다면 아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서럽거나 초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업'이란 말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도 드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뭐라 그립니까. 전생에 왜 이리 업이 많은지,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아이구 이래도 업이 다 소멸되지 않았는지 이런식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체 업이란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쩌서 그러나 하면 이 업이라는 말이 어원이 본래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인데 이것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중국 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바로 업(業)자를 사용하게 됐어요. 업을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직업이 무엇이나?" 그러지요 이것도 결국은 현재 하는 일 즉 업을 묻는 것입니다. 내 직업은 상업이다. 농업이다. 공무원이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업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했던 일거수일투족 행위 자체도 업 아닌 것이 없지요.

업은 크게 '사업(事業)'과 '사기업(思己業)'으로 나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선악사비를 누가 만들어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목전에 선악과 사비가 왜 나타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선악의 원인은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에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선과 악으로 갈라질까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요, 그다음에 착한 생각, 어진 생각이 일어나는



통도사 등서 11하안거 성만

묘허 스님은 1943년생. 1957년 상주 남장사에서 한신당 화엄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63년 상주 남장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1965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이후, 성암강백 화상 밑에서 대교이력 및 <전등록>을 이수하고 이후 제방에서 정진하였다. 특히 통도사 보광선원 수선안거에 11하안거를 성만했다. 1975년 은해사 말사 군위 법주사 주지를 거쳐, 1979년 신탄진 선승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신탄진 선승사·김해 원명사·단양 방곡사의 회주를 맡고 있다.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예 이 생각 자체를 끊어 버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 좋고 나쁜 생각 등 그 생각 자체를 '사업(事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깨 버리면 업이 되질 않는데, 이것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 버리면 '작위업(作爲業)' 즉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결정지어진 생각을 우리 몸품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위업(行爲業)' 즉 '사기업'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통칭해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말하면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생동안 우리가 지은 업은 끝이 없습니다.

그 셀 수 없는 업을 또 나누어 보면 선업과 악업, 무기업 등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가 함께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행위가 선업이고, 자신과 상대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악업이며, 자신과 남에게 해도 득도 모두 안되는 것이 바로 무기업입니다. 무기업은 힘이 없는 업, 무기력한 업을 말합니다. 왜 나같이 힘없는 늙은이를 무기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이런 업들을 우리는 몇가지 신체기관으로 짓게 됩니다. 신구의(身口意) 즉 몸과 입과 뜻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바로 신구의 3업이라고 합니다. 첫째, 몸으로는 살(殺), 도(盜), 음(淫)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몸으로는 세가지 업을 짓게 돼 있지요. 둘째, 입으로는 네가지 업을 짓는데 망어, 기어, 양설, 악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으로는 탐, 진, 치 세가지 업을 짓지요. 신구의 기관을 통해 나쁜 행위를 저지르면 악이 되고 참으로 선업이 되지요.

업에는 또 나와 남이 함께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공업(供業)'이 있고, 그 과보를 혼자 돌려받는 '불공업(不供業)'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의 3업을 통해서 한번 짓고 저질러 놓은 업은 백겁 천겁 만겁이 지나가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자기 스스로가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때에는 또 어떻게 받느냐 하면 선업은 선보(善報),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내가 좋은 일을 해냈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업은 악보(惡報)라 했지요. 나쁜일을 지어 놓았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이 업은 생유와 분유, 그리고 사유와 중유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 자리잡고 있을때인 양태, 세상이 나오기전까지 뱃 속에 있는 동안의 태태, 태어남의 출태, 이 세가지를 한마디로 생유라고 하고,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을 분유라고 합니다. 한 평생 살다가 죽으면 사유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다시 이생으로 돌아올 때 까지를 중유라고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생유에서 분유로, 사유에서 중유를 통해 다시 사유를 거쳐 생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에서 사로 가면 돌아가신 것이지만, 사에서 다시 생으로 오니 돌아오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윤회와 업의 원리를 정확히 알면 금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정확히 나오지요. 불자여러분들 곧 희망찬 새해가 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업의 의미를 곱씹으며 새해에는 더 많은 선업을 쌓기 위해 마음을 다 잡는 연말이 되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날마다 선업쌓는날 되십시오. 정려=김주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5>



술을 왜 마시지 말라 할까

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술 취한 사람 세 명을 만났습니다. 평소 술 먹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부처님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중 한 명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속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세를 바르게 하여 앉은 뒤에 제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계율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에게 보란 듯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내가 당신 술을 마셨소? 그것도 아닌데 왜 내가 두렵고 부끄러워해야하오?"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한 세 사람을 두고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 하였습니다.

"술 속으로 도망친 사람은 미래에 미혹이 부처가 될 때까지 가 되어 해탈할 것이다. 자세를

마시면 사람을 180도 바뀌는 '술' 마셔서 좋은것보다 나쁜것 더 많아 5계에도 '술 마시지 말라' 들어있어

바로 앉아 제 뺨을 때린 사람은 천 명의 부처님 세상이 지난 뒤에 성자가 되어 해탈할 것이다. 그러나 일어나 춤을 춘 자 사람은 결코 제도되지 못할 것이다." (구잡비유경)

술 마시기 딱 좋은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월급 타서 한잔(월요일), 화가 나서 한잔(화요일), 수급해서 한잔(수요일), 목이 말라 한잔(목요일), 급주의 날이어서 한잔(금요일), 주말이라서 한잔(토요일), 일을 안 해서 한잔(일요일)'이라면서 매일 술잔을 기울여왔는데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아쉬움을 술잔에 담아 마셔버려야 하는 좋은 구실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술은 기원전 4-5천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 온 음료입니다. 원시시대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고 목이 마르면 과일을 따 먹었는데 그러다 차츰 과일을 씹아두게 되고 그렇게 저장된 과일들이 발효가 되면서 시큼한 액체로 변하고 그것을 마신 인류는 점차 그맛에 길들여져 그 음료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술의 기원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지라 술과 인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병을 고칠 때도, 추위를 이겨내기 고통을 잊거나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술은 언제나 사람의 손 가까운 곳에 있어

왔습니다. 술이란 참 요묘한 액체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180도 바꿔놓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고백을 할 때, 평소 직장 상사에게 억눌렸던 감정을 털어놓을 때 술의 힘을 빌리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친구와 다정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밤새 나누는 대화는 상상만 해도 정겹습니다. 어른이 된 자식에게 술을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에서는 익숙함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술이란 것은 딱 그 정도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한 사람은 "한 잔만 더"를 외쳐대며 그제 문제입니다.

술 그 자체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술을 마신 뒤에 항상 실수를 저지르고 마니 반드시 지켜야 할 5계에 '술 마시지 말라'가 들어간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참 많은 허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술자리를 피하고 이 허물들 중에 몇 가지가 내게 있는지 따져 봐도 그리 나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첫 번째로는 재산이 허망하게 없어진다. 취해버린 탓에 절제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온갖 병에 걸린다. 세 번째는 자주 시비가 붙게 된다. 네 번째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주 벌거벗는다. 다섯 번째는 '저 사람은 술단'이라는 오명이 퍼져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지혜가 없어진다. 일곱 번째는 숨겨야 할 일을 모두 말해버린다. 여덟 번째는 성공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는 취한 동안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깨어난 뒤에는 부끄러워지고 근심이 생기게 된다. 열 번째는 차츰 건강을 잃어간다.

열한 번째는 부모와 윗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열두 번째는 나쁜 이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고 선량한 친구들이 떠나게 된다. 열세 번째는 점점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할 줄 모르게 된다. 열네 번째는 정욕에 휘말려 방탕해진다. 열다섯 번째는 못 된 짓을 저지르고 착한 일을 멀리하게 된다. 열여섯 번째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이 멀어진다. 술에 취하면 게을러지기 때문이다. 열일곱 번째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며 설명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도 미련한 이가 될 것이다."

<법원주람>에서는 이밖에도 더 많은 허물을 이야기한 뒤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 이미명(동국대학교 영역연구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퀘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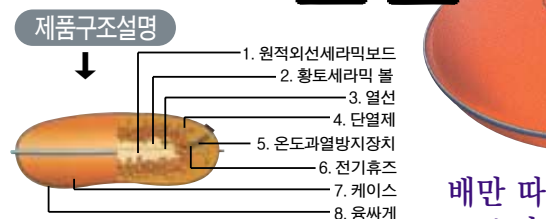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 경상도 : 010-7638-1117
강원도 : 019-396-1110 | 전라도 : 010-2311-0157
충청도 : 010-8674-2357

현대 칼라지붕공사

토황토 배짚질기



배만 따뜻하게 하십시오. 오장이 튼튼합니다. 배만온짚질 용도 이외에 허리, 가슴, 어깨, 손, 발, 무릎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즉시 물건을 받아 보시고 충분히 검증 후 결제하셔도 됩니다. 100% 환불 보장

속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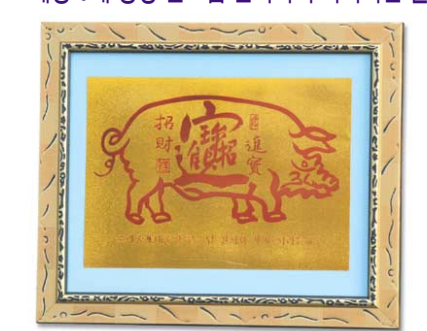
배새끼 속항을 맡으며 꼭 주무십시오.



• 규격 : 가로 55cm x 세로 35cm
머리가 맑아지며 피로감이 사라져 몸이 참 개운합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웃 짓고 율염하며 사시는 맑고 밝은 김순옥 보살님의 솜씨입니다.

초특가!! 1+1+1+1=4개를 98,000원에 드립니다.

조계종 9대 종정 큰스님 친서화 부자되라는 글



• 규격 : 가로 29cm x 세로 24cm
* 금장도금, 고급 양장 케이스
* 단체 주문시 보시 가격에 드립니다.

돼지 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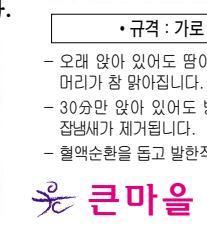
불자님 각 가정마다 행운을 기원하며 큰 스님께서 친히 내리신 친서화입니다.



내년은 정혜년 돼지해 내년은 100년만에 찾아온 금돼지 해입니다.

속방석

천연 우리 속 100% 천연 황토물범 속항이 가득합니다.



• 규격 : 가로 50cm x 세로 50cm x 높이 5c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고 마음이 개운하며 머리가 참 맑아집니다.
- 30분만 앉아 있어도 방안에 속항이 가득하여 실내의 온도가 저가됩니다.
- 혈액순환을 돕고 발한작용을 촉진시키고 신선 안정에 좋습니다.

크마을 사람들

전남 순천시 석현동 896번지
주문전화 : 061)755-4879
농협 : 601063-52-099899 예금주 : 박익숙